

휴대폰부품 파주공장 화재

파주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.

8월25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한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다.

불은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, 키패드와 기계 등 내부 645㎡를 태워 3000만원 상당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8/26>